

우리들 공간



일리아 나부 성전 사진: 마거엘라 에스, 미국 플로리다 주

위: 하나님은 나와 내 자매들을 개인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이 느껴지는 사진. 자매 중 한 명은 현재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.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삶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주었다.

케니아 알, 멕시코 몬테레이 성전에서

#TempleChallenge[성전 도전 과제]를 받아들이다

나는 2012년에 침례를 받고 브라질 이포메이아 지방부의 한 지부에 참석했으며, 2014년 이후로는 가족 역사에 흠뻑 빠졌다. 루츠테크(RootsTech)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엘 앤더슨 장로님이 자기 가족의 이름을 찾아 대리 침례를 받으라고 하신 권고를 듣고 시작된 일이었다. 나는 “두드리면” “열릴!” 테니 헌신적으로 가족 역사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(마태복음 7:7 참조)

이제 나는 더 많은 세대를 찾았고, 사진과 서류는 물론 무엇보다 가족의 일화를 더 많이 수집해 두었다. 정말 멋진 일이다. 그리고 이런 정보를 활용하여 우리 가족 역사에 있는 사진과 낱자를 넣어서 책도 한 권 만들었다.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교회 회원이 아닌 여러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, 그러면서 가족은 영원하다는 간증도 나눌 수 있었다.

이 일을 계기로 나는 거룩한 장소에 설 수 있었고, 교회에서 활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으며, 선교사로서 주님께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.

이 교회가 휘장 이편과 저편에서 행하는 구원 사업은 참되며, 이 사업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간증한다. 선교사가 되기 전에는 조상을 위해 침례를 베풀었던 내가 이제 선교사가 되어, 삶을 영원히 바꾸고자 소망하는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침례를 베풀고 있다. ■

클라우드오 클라우드 이세 장로, 에리조나 메사 선교부